

전남 유학 외국인들 여수서 스피치 콘테스트

세계박람회 1주년 기념 18일~19일 개최

'4대 미향 알리기' 한국어로 '7분 스피치'

세계박람회 개최도시 여수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스피치 콘테스트가 열린다. 여수 여천청년회(여천JC)는 2

일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회 1주년을 기념해 '2013 외국인 유학생 세계4대 미향여수 스피치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남지역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6월 18~19일 이틀간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박람회 이후 국제도시로 부상한 여수를 주제로 7분 동안 우리말로 발표하게 된다.

경연 1등 팀에게는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팀 3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지며 대회 전날 여수관광 투어도 실시해 참가자들이 여수에 대한 이해

를 높일수 있도록 했다. 참가대상은 전남지역 대학에서 재학중인 외국인 대학생이면 가능하고, 신청은 여천JC 사무국(061-683-0319)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하면 된다.

여천JC 고용국 회장은 "이번 대회는 전남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이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여수의 가치를 깨닫고 각자 모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

를 마련코자 기획됐다"며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통해 더 많은 유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여수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천JC 회장단은 '청년의 꿈과 열정이 함께하는 여천JC'라는 슬로건으로 다음 달 지역 아동보육시설인 여수삼해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곡성 장미축제 32만명 왔다

1004종 장미공원·레일바이크 등 '인기몰이'

곡성군이 지난달 24일부터 2일 까지 개최한 장미축제에 3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향기, 사랑 그리고 꿈'을 주제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1004종의 세계 각국의 장미를 보기위해 몰려든 단체관광객과 연인, 가족 등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군은 2일 "축제기간 동안 섬진강기차마을을 찾은 방문객은 32만여명이고, 이 기간 동안 곡성에 다

녀간 전체 관광객 수는 56만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행사장인 4만㎡ 면적의 1004 장미공원에는 유명 장미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되기도 했다.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는 주말 30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수 있었으며, 바이킹 등 인근 놀이시설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이달의남도 전통술

'광양 매실막걸리'

전남도는 6월 대표남도 전통술로 '광양 매실막걸리'(사진)를 선정했다. 광양 매실막걸리는 4월 중순부터 수확한 매실과 쌀로 빚은 탁주를 저온으로 장기간 발효시켰다.



매실의 향취를 최대한 살리면서 부드러운 탁주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고급 술이다.

광양 ㈜백운주조 조정근 대표는 "광양 백운산 줄기에서 나온 맑은 물이 곧 술 맛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전통주를 만들고 있다"며 "국내산 쌀과 광양매실 등 최고의 원재료를 사용해 애주가들로부터 프리미엄 탁주로 사랑받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 매실막걸리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연속남도 전통술 품평회에서 살균 막걸리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소비자 판매 가격은 유리병 750ml에 3000원, 페트병 1000ml에 2000원이다. /장필수기자 buny@



감자 수확 돕는 전남도 직원들

전남도 주부 명예기자들과 전남도 대변인실 직원 70여명은 지난 31일 보성군 득량면에서 감자 수확 일손 돕기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日 고치현 우호교류 10주년 행사

전남도와 일본 고치현이 우호교류 10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호교류 10주년을 맞은 일본 고치현에서 지난 31일부터 3일 동안 대규모 방문단이

전남을 찾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고치현의 날 행사 참석 등 다양한 우호교류 활동에 나섰다.

오자키 마사오 고치현 지사를 단장으로 한 80여명의 방문단은 첫날인 31일 순천 예코그라드호텔서 박준영

전남지사가 주최하는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10년간의 교류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공동 협력을 다짐했다.

기념식에서는 특히 양 지역 민속공연과 함께 목포공생원 어린이들이 합창공연을 선보여 국경을 초월해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던 목포공생원 설립자 고(故) 윤학자 여사의 송고한 정신을 기렸다.

박 지사와 오자키 마사오 지사는 양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수산물, 신재생 에너지, 공공디자인 분야 등 비교 우위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세기 운항, 수확여행단 교류, 크루즈 관광상품 공동개발 등 관광분야 교류 활성화에도 발전적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y@

순창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호평

기초수급자 대상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선

순창군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해 호평받고 있다.

군은 2일 "6월부터 8월까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7세대를 대상으로 장애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집수리사업이 있으나 주거환경 개선 차원의 수리만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등 생활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4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개보수사업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도 5세대에 1900만원을 투입해 주거 환경을 개선했으며, 올해는 2세대가 확대된 7세대를 대상으로 27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화장실 개조에서부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접자 블록도 설치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집안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주택 내 안전장치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북

부안 임산물 새소득 4大품목 육성

郡, 더덕·도라지·하수오·잔대 대량 생산 돌입

부안군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임산물 생산체계를 갖추고 신소득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 고소득 작목 생산이 가능한 더덕과 도라지, 하수오, 잔대 등 4가지 작목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군은 2일 "현재 부안지역 내 산림작물생산단지 총 4곳에서 더덕과 도라지, 하수오, 잔대 등을 집중 수확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단지는 보안면과 주산면에 집중돼 있으며 산림작물 생산은 지난 2010년에 하늘숲작목반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출발했다. 지금

은 보안 월천리와 주산 사산리 인근 임야 23.7ha 규모의 면적에 장생더덕과 장생도라지, 잔대를 재배하고 있다.

하늘숲작목반의 재배기술은 주변 임업인들에게 전파돼 지역 내에서도 임산물 특화품목을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청산악초작목반도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보안 상입석리에 위치한 15.2ha 규모의 임야에 장생더덕과 하수오 재배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부안장생더덕도라지작목반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산 소사리 인근 임야 12.6ha에서 장생더

덕, 장생도라지 생산에 돌입했다. 또 변산농협 위도 장생더덕도라지작목반도 올해 사업 공모에 선정, 보안 남포리에 위치한 임야 9ha에서 장생더덕과 장생도라지 생산체계를 갖추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임산물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는 4개 작목반 조직의 통합을 도모해 범인화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작목반별 임산물 생산노하우를 집약해 공동으로 산림청 임산물유통센터 공모에 참여해 임산물을 활용한 제품 생산과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부안=정재용기자 jzy0681@kr

남원역 광장 새단장...관광객 휴식공간 제공

남원을 대표하는 관문중의 하나인 남원역 광장이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철도이용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힘터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

남원시는 2일 "사업비 8억7000만원이 투입된 남원역 교통광장 조성사업이 지난해 말 착공해 지난 31일

완공됐다"고 밝혔다. 택시 및 버스승강장 승강장과 빛가림막, 화단 등이 신규 설치됐으며, 광장 내에 소나무 등 조경수 식재, 음수대 설치, 화단 및 꽃 박스 등을 뒤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전주 수질 개선 398억 투입 하수관거정비

전주시는 2일 "하수처리장 운영개선과 수질개선을 위해 2014년까지 총 사업비 약 398억원을 투입해 구도심 노후상류 상류 일원 등에서 총연장 25km의 하수관거정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군경묘지 진입로(관선1길, 간남대1길, 낙수정2

길) 하수관거매설 작업기간동안 불가피 교통통제에 따른 차량 우회를 실시하고, 시내버스(486번) 운행이 불가한 군경묘지 진입로(관선1길, 간남대1길, 낙수정2길)에 대체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읍 버스승강장 17곳 일제정비

순창읍(읍장 강성일)은 지난달 30일부터 깨끗하고 청정한 순창 만들기 일환으로 순창읍 일원 17개소 버스승강장 일제 정비에 나섰다.

이번 순창읍 주변 승강장 일제 정비는 오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노후된 엠블렘을 교체하고, 불필요한 부착물과 잡초 제거 등 주변 환경 개

선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깨끗한 순창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용남 부읍장은 "순창읍에서는 올해 읍정방향으로 '깨끗한 순창' '정직한 순창' '친절한 순창'으로 정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클린순창 양심지킴이 운동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 동학농민 사상 초·중·고교 순회 교육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소중한 정신을 지역 정체성으로 확립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학생들에게 교육한다.

지난달 22일 고창남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과 고창'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을 통한 다양한 질

문과 의견을 나누며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고창지역이 갖는 역사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고창초, 가평초, 심원초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했으며, 군은 이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6월 풍성한 '여름축제' 기다려지네

반딧불축제·산골영화제·단오제 등 즐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을 맞아 전북 도내에서 다채롭고 풍성한 여름축제들이 펼쳐진다.

6월 1~9일 청정도시인 무주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관광최우수 축제에 선정한 '제17회 무주 반딧불축제'가 열린다.

청정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반딧불이를 주제로 한 대표적인 환경축제로,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반딧불이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탐사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같은 달 16~17일 이틀간 '제1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무주예천문화관과 무주덕유산리조트, 덕유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 기간 상영될

영화는 14개국에서 출품한 54편. 전주에서는 같은 달 7일부터 나흘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펼쳐진다.

전주한옥마을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성인대회와 학생대회가 함께 개최되는 등 보다 품격있는 국악경연대회가 될 전망이다.

역시 13~14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열린 '제55회 전주 단오제'는 풍류행사과 씨름대회, 민속놀이 경연 등 다양한 볼거리로 꾸며진다. 21~23일 고창군에서 개최될 '2013 고창북분자와 수박대축제'도 고창의 대표 특산물인 북분자와 수박을 소재로 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물대포 맞는 인권위원회

조용한 전북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장준갑 전북대 사학과 교수, 박민수 변호사 등 전북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6명은 지난 30일 오후 완주군 경찰청 기동대를 방문, 시위 진입에 사용되는 물대포를 맞았다. 이들은 경찰 무기로 길아입고 6000ℓ 가량의 물을 맞으며 물대포 사용 시 위생성 등에 대해 토론했다. /연환뉴스